

국산 디젤차량 '경유 폭탄'

5일 현재 휘발유값 92% 수준 육박 스포츠지 판매량 전년보다 12% 감소

경유값이 휘발유값의 92% 수준까지 육박하면서 기아차 광주공장의 스포티지 등 국산 디젤차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경유값의 고공행진이 이어진 지난 1~3월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국내시장에서 판매한 디젤 승용차는 4천709대로, 4천811대가 팔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여대 가량 줄었다. 지난해 1~3월에는 없었던 현대차의 i30 디젤모델이 가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디젤 승용차의 판매대수를 따라잡지 못했다.

기아차 스포티지의 경우 올해 1~3월 6천542대를 판매, 지난해 같은 기간 7천306대보다 764대(11.7%) 줄어 들었다. 기아차 프라이드도 디젤모델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1~3월 27.3%에서 24.2%로 내려 앉았으며, 로체 디젤모델과 토스카 디젤모델도

지난 3개월간 각각 22대, 25대 팔리는 데 그쳤다.

RV(레저차량)인 현대차 투싼도 지난해 1~3월 평균 2천500대 가량 팔렸으나, 올 들어서는 2천대 밑으로 푹 떨어졌다. 1월 1천460대, 2월 1천969대, 3월 2천95대를 기록했다.

GM 대우의 윈스톤도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 월평균 2천400대 가량 팔았지만, 올해 1월 1천980대, 2월 1천444대, 3월 1천386대로 떨어지는 추세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국산 디젤 승용차는 모두 10여종에 이른다. 이들 차종(i30 제외) 가운데 지난해 1~3월과 비교해 판매대수가 늘어난 차는 현대차의 아반떼가 유일하다.

기아차 관계자는 "디젤 승용차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은 연비·연료값 등 경제성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나 경유값이 휘발유값에



경유값이 휘발유값의 턱밑까지 치솟으면서 디젤 모델 등 경유 차량 운전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6일 광주 한 주유소의 유류가격 표시판. /위지량기자 jrwi@kwangju.co.kr

근접함에 따라 디젤차의 매력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디젤 승용차는 같은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비해 차값이 통상 200만원 이상 비싸지만, 우수한 연비와 상대적으로 값싼 경우 때문에 '경제성'을 갖춘 차량으로 평가돼왔다.

한편 지난 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4월 첫째주 전국 1천100개 주유

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석유제품 가격 조사 결과 경유 평균가격은 전주보다 31.99원 뺀 1 당 1천580.75원을 기록하며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연 보통휘발유는 4.11원 올라 1천 681.93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9.06원이었던 휘발유와 경유의 평균가격차는 이번 주 101.18원으로 좁혀졌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원금보장제·'파격적' 분양가 인하 등 지방 주택업체 미분양 해소 나선다

대주·한국 등 계약원금 환불 보장 진흥기업, 분양가 10% 정도 내려

주택건설업체가 최근 광주·전남 등 지방 청약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원금보장제 및 분양가 인하 등 공격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같은 해택은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입지가 좋고 분양가도 저렴한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알짜 미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일 부동산포털 '사랑방닷컴'에 따르면 최근 광주·전남 주택건설업체들은 원금보장제와 분양가 인하 등 다양한 미분양 해소책을 내놓고 있다.

현재 원금보장제를 실시하는 단지

는 광주시 북구 연제동의 연제3차 '피오레' 등 3곳이다. 원금보장제는 입주 전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이하로 내려갈 경우 조건없이 계약자가 낸 돈을 돌려주는 파격적인 제도다.

대주건설은 연제3차 '피오레'의 미분양분에 대해 계약자가 입주개시일 1개월 안에 계약을 원할 경우 원금 전액을 되돌려준다.

이 제도는 오는 30일 계약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앞서 한국건설은 광주 오치, 소재, 풍암 '아델리움'아파트에 대한 원금보장제를 도입했으며, 대방건설의 수완지구 '노블랜드'도 입주 3개월

전 계약자가 원하면 계약원금을 환불해준다.

분양가를 낮춘 곳은 수완지구내 양우건설의 '내안'과 진흥기업의 '더블파크' 등 2곳이다. '내안'은 109㎡의 분양가를 기존 1억8천400만원에서 1억6천900만원으로 낮췄다. 진흥기업도 '더블파크'의 분양가를 10% 가량 인하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지원해주는 곳도 있다. 우미건설은 수완지구 '린'아파트 잔여세대 계약자에 한해 취득·등록세를 지원해준다. (주)현진도 하남2지구 '에버빌'의 취득·등록세를 지원한다.

사랑방닷컴 관계자는 "입지여건이 좋은 단지들도 일시적인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으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만 고르면 3~4년 후 집값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현대·기아차 그룹 계열사 사장단 회의 '사회적 책임 성실 이행' 결의

현대·기아차그룹은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열고 사회적 책임이행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가경제와 사회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세부과제로 ▲상생의 노사문화 기반 구축 및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통한 신뢰경영 ▲친환경 차량 양산체제 조기 구축을 통한 환경경영 강화 ▲저소득층 지원, 장애인 이동권의 증진, 청년 봉사단 해외파견을 비롯한 사회공헌 확대 등 3개 부문 27

개 과제를 선정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이밖에 대학 인턴제도를 활성화해 취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입사전형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과제 달성을 위해 정몽구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등 자산 2조원 이상의 5개 계열사를 주축으로 하는 그룹 사회적책임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이와함께 각 사별로도 사회적책임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그룹 및 각사의 과제 이행수준을 엄격히 평가할 방침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光銀 '모기지플러스론' 출시

집값 80%까지 대출 최장 35년간 상환

광주은행은 집값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최장 35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는 아파트 담보 특화상품 '모기지플러스론'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로서, 만 20세 이상~65세 이하 개인이 비투기지역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금리는 시장 연동금리를 적용하되

3자녀 이상이거나 부모를 봉양하는 가구는 금리우대 혜택을 주고 대출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비용을 면제해준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대출한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장기 분할상환이 가능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aT광주·전남지사 '농산물출하촉진자금' 지원

aT(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지사장 권용주)는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종사자의 대금결제기능을 높이기 위해 '2008년 농산물출하촉진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이며, 지원되는 자금은 생산자(단체) 및 산지유통인과의 출하약정을 위한 '출

하선도금'과 도매시장 및 중도매인의 결제기능 강화를 위한 '결제자금'으로 나눠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연 4%, 대출기간은 1년이다.

응차 신청과 접수일자는 8일까지이며, 신청서는 aT 광주·전남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062)940-7020.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건설사 체감경기 급속 악화

3월중 CBSI 17P 하락... 미분양 늘고 자재비 급등 여파

미분양주택 증가와 자재비 급등 등의 여파로 건설업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급속히 악화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해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대비 16.8포인트 하락한 58.2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지수는 지난 2월에 전월대비 7.4포인트 상승했으나 한달만에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건설업체들의 체감경기가 이처럼 크게 악화된 것은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건설자재비 급등과 수급 불안까지 겹치는 '삼중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업체 규모별로 지수를 살펴보면 대형(55.6), 중견(75.0), 중소(42.2)업체의 지수가 각각 전월대비 31.9포인트, 4.3포인트, 13.2포인트씩 하락해 업체규모에 관계없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지수는 2006년 8월 31.4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여서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사물량지수도 지난해 2월(64.8) 이후 최저치인 66.2에 그쳤다. 자재비 및 자재수급지수도 사상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다.

자재비 지수는 전월대비 17.4포인트 하락한 16.0을 기록, 지수 조사가 시작된 2001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자재수급 지수도 전월대비 20.5포인트 낮아진 44.2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광주 동림 우미아파트 부녀회 등 농협 '1사 1촌상' 수상단체 시상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는 최근 본부 대강당에서 현대차 순천서비스센터와 순천 황전 회룡마을, 광주 동림동 우미2차아파트 부녀회와 장성 수련산 자연농업농조조합법을 '4월의 1사1촌상' 수상단체로 선정, 시상했다. (사진) 현대자동차 순천서비스센터(대

표 김용운)는 지난 2005년 순천 황전 회룡마을(대표 정종관)과 결연한 후 15회에 걸쳐 회룡마을의 농산물을 구입해왔고, 매분기 임직원 35명이 마을을 방문해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수련산 자연농업농조조합법인(대표 정주연)은 지난해 동림동 우미2차 아파트부녀회(대표 이순오)



와 인연을 맺은 뒤 매주 금요일 부녀회에와 직거래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미도

확장기업

일일미도(주)가 2008년 3월 14일 현재 100% 지분을 인수하여 새로운 경영체로 출범하였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미도(주)는 현재 미도(주)에 인수되었습니다.

대표: 서정민

| 항목/수입특선 | 가격 |
|--------------|--------|
| 미도현식 | 29,000 |
| 미도현식 | 13,000 |
| 특수급미도(매일포장형) | 15,000 |

특정 50% 할인 (우리는 품질만큼 약속합니다)

문의: 234-0001

스카이뷰

국제외식산업(주)

스카이뷰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신규 메뉴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특별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문의: 062-262-2278